

지역 매아리

세입자 보호, 법으로 명시

김제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완주군, 한우 숯불구이 축제 오늘 개막

질 좋은 한우로 유명한 완주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열린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고산미소 광장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원하고 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부와 완주군한우협동조합에서 주관하며, 한우농가가 직거래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한우 등심 100g당 1등급 6,000원, 1?등급 7,500원, 1??등급은 8,500원에 판매하고 정육(국거리, 불고기)도 1등급 3,000원, 1?등급 3,600원, 1??등급 3,800원에 판매하는 등 대형 유통마트보다 최대 33% 가량 저렴하게 한우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는 숯불구이존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경매이벤트, 한우 시식회도 열릴 예정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영호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한우의 우수성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 지향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전세계약 불안감 해소 대항력 발생 시기 변경' 안전 법령 개정 추진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개혁안이 또 다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완주군은 지난 9월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법령 개정으로 이끈 것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효력 일시를 제안한 내용 역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에 제출한 '전세계약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항력 발생 시기 변경' 안전이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것.

이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자를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자를 받으면 그 효력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된다.

확정일자자는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임차인이 근저당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한 뒤 확정일자 등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효력이 당일 발생하는 저당권에 밀려 전세자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합리함이 존재했다.

전세 세입자가 금요일에 이사하고

감빡해 다음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자를 받을 경우 효력이 화요일부터 발생해, 그 사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것.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접하고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법 개정까지 이끌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가 군민의 손에 의해 건의되고 해소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공무원, 변호사, 사회경제단체 임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각종 규제 심사, 규제개혁 점검과 의견수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완주군 연초박 반입업체

현장조사 결과 발표

완주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반입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은 익산 잠점마을 관련 업체의 공정과 달리 고열을 가열하는 처리 공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잠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국내 상당수 지역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완주군은 지역 내 연초박 관련 사업장 H사를 긴급 현장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완주군 업체는 문제가 된 익산 업체의 공정과 달리 폐기물(연초박) 재활용 공정에서 300°C 이상 고열로 가열 처리하는 공정이 없이 자연 발효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아예 연초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케이터엔지 광공공장구장 등으로 부터 지난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4년 동안 총 142.94톤의 연초박을 반입, 자연 상태에서 톱밥 등과 섞어 조정공사 시 퇴비처럼 사용하는 부속도를 생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완주군은 정부 차원에서 연초박 반입업체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경부 방침에 맞춰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허전 김제시 부시장

호룡 현장행정 실시

허전 김제시 부시장은 지난 27일 김제 특장차 선도기업인 (주)호룡을 방문하여 기업에로서향 청취 및 특장차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제시는 특장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특장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최초 특장차 집적 전문단지 조성을 하고 있으며, 이미 2014년도부터 백구면 부용리 일원에 총 3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특장차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32만 7903㎡(약 10만평)규모의 특장차전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2018년 2월 28개 기업에 분양 완료하였다.

현재는 제2백구특장차 전문단지 28만 7500㎡(약8만7000평)를 추가로 조성하여 2019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을 추진한 (주)호룡은 1990년 1월 설립, 1992년 3월 김제만경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국내 최고 고소작업차 및 고가사다리차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최고 높이의 고소작업차와 세계 최고 높이의 고가사다리



차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매년과 소음이 없는 저공해 건설기계인 전기굴착기 제작에 성공하여 2019년 6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20년도 시범사업을 준비중으로 건설기계·특장 분야에 친환경 바람몰이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전 부시장은 "먼저 이런 불경기에도 기술개발을 통한 경영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호룡대표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주)호룡의 끊임없는 도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성공은 기업의 성과만이 아닌 김제시 특장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특장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활면, '부자 농촌' 기반 다지기

벼 수확을 대부분 마친 농촌에서는 논을 놀리거나 보리 이모작이 대부분이나 광활 면민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2농기를 맞이한다.

김제시 광활 면민들은 벼 수확을 마친 논에 시설감자, 시설채소 등 이모작 이상으로 다른 농촌에 비해 땅의 효율을 두 배, 세 배 이상 높이고 부자 농촌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벼 수확이 끝난 논에 시설감자를 심기 위해 카다란 활시위 모양의 철재를 박는다. 매년 시설감자 파종을 위해 성인 남자 여섯 명이 공동체 품앗이를 이루어 집마다 서로 일손을 도와주며 하우스를 설치한다.

매년 감자를 심을 때 무거운 철재를 논바닥에 박았다가 다시 벼를 심기 위해 한쪽에 뽑아두는데, 반복되고 힘든 하우스 작업을 하는 이유는 심는 만큼 결실을 내주는 정직한 땅을 믿기 때문이다. 팥방울을 땅에 심는다는 마음으로 심은 만큼 거둔다는 확실한 원리를 누구보다도 삶으로 느껴온 농사꾼들이다.

옛날 두레의 협동과 근면하고 성실한 정신이 마을 주민들의 삶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듯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동아리가 11월 13일 실버인지논이지도사회의 '치매예방교육' 학습봉사를 했다.

김제시,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큰 호응

학습소외계층 위한 방문형 재능기부

김제시는 관내에서 활동 중인 평생학습동아리가 학습을 다시 나눴다.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에는 11월 13일 실버인지논이지도사회의 '치매예방교육' 학습봉사자를 시작으로, 11월 28일 한울타리의 '미니다육식물화분 만들기' 체험봉사까지 19개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는 학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동아리가 재능기부로 강좌를 배달하는 것으로 요양원,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읍면동 마을경로당 등 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방문했다.

프로그램은 3가지 테마형으로 발매트 만들기, 가족카드지갑 만들기 등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악물오남용 예방교육 등의 학습활동 하는 학습형/

전문인요, 판플룻 연주 공연 등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연형의 2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만 운영하던 작년과 달리 상·하반기에 모두 운영하여 한층 확대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체험에 참여한 신봉동 내기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러 나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평생학습동아리의 재능기부 높은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학습결과를 공유하고,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서민태 인재양성과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동아리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고 강조하며,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